미세먼지 물러가니 땡볕에 오존 공습

광주 한달새 5일 오존농도 나쁨…전남 최근 3일 경보 발령
오늘·내일도 나쁨…장시간 노출시 눈·호흡기 손상 주의
순천·광양 유달리 높아 원인 규명·개선 대책 마련 시급

미세먼지가 물러가니 오존이 비상이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로 규정된 '오존(O3)'은 무색·무미라는 특성 탓에 일반의 관심이 크지 않지만, 노약자의 경우 장시간 노출시 눈·호흡기 손상을 불러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존이 자동차나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햇빛을 만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통행이 잦은 도심과 산업단지 부근 주민들은 오존 농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9, 20일 광주·전남 지역의 오존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18일 예보했다.

환경당국은 오존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될 경우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자)과 일반인 모두에게 장시간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바깥에 활동을 삼가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오존 예보 등급상 나쁨 수준의 오존 농도를 보인 날은 총 5일로 나타났다. 오존예보 등급은 미세먼지 예보처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분류되는데, 나쁨의 경우 오존농도가 0.091ppm에서 0.150ppm 사이일 때를 가리킨다.

전남의 경우 오존예보와 별개로 광역단체장이 발령권을 갖는 오존경보제를 올들어 3일이나 발령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시 순천과 광양에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과 18일 광양지역에 오존 농도가 치솟으면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전남지역 대기질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약 1개월 동안 분석해본 결과 역시 순천과 광양지역의 오존농도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예보등급상 나쁨 수준의 오존농도를 보인 날은 총 15일로 파악됐는데 단 하루 영암 나불리(5월30일, 최고농도 0.106ppm)를 제외한 14일 동안 순천과 광양지역 오존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남의 경우 순천·광양지역 오존 농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원인규명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보일 정도다.

성층권에서의 오존이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지표상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이다. 강력한 산화제로 쓰이며, 인체에 오래 노출될 경우 호흡기·폐·눈 등 감각기관에 손상을 준다. 고온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생성되기 쉽다. 축적된 오존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3~5시, 5~8월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강한 성인과 달리 호흡기 질환자, 영유아, 노인들은 오존농도가 높은 날 실외활동을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염·오존에 건강 지키려면

어린이·노약자 외출 자제하고 야외 수업 삼가야

폭염주의보,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좋은 대책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보건환경당국은 조언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거나 도심 및 산업단지 부근 오존농도가 치솟을 경우 야외 수업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폭염특보 발령에도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하는 게 좋다. 이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자, 교사들은 운행을 마치고 차량 안을 꼼꼼히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밭일을 하거나 산행도 중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뒤 휴식을 취한 후 움직여야 한다.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어린이 등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야한다.

오존의 경우 발생 특성(자동차, 굴뚝 매연과 햇볕의 광화학반응)을 고려하면,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심과 산단 부근 주민들은 오존 농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외출을 고려해야한다.

광주의 한 환경·보건 전문가는 "폭염과 달리 '오존'의 경우 자동차 운행, 공장 가동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할 자치단체의 규제, 환경단체의 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염엔 물놀이가 최고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사흘째 이어진 18일 광주천 상류인 광주시 동구 지원동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

태국 여행 다녀온 30대 여성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 첫 번째이자 전국 네 번째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 등 해외여행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8일간 태국을 여행한 30대 여성이 귀국 후 발진·발열 등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서 환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역학조사 결과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해 추가검사 후 귀가 조치됐고, 귀국 후 헌혈력과 성 접촉, 모기 물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17일 질병관리본부와 2차 세부 역학조사를 실시, 감염자와 태국에 동행한 여행자의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모기 방제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전남도는 하절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방역소독과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 모니터를 강화하고, 콜레라·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등 감염병 모니터와 모기방제 등 방역활동 상황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방문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발생 사례가 느는 만큼 동남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모바일 사이트(http : //m.cdc.go.kr)나 질병관리 누리집(http : //www.cdc.go.kr)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지킬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감정싸움만 하다…실망스런 '끝장 토론'

광주 서구청·노조 성과금 분배 등 4시간 내내 평행선

공무원 성과급 분배 논란에서 촉발된 갈등을 풀어보려고 토론회에 나선 광주 서구청과 공무원노조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다. 지켜보던 공직사회 내부에선 "임우진 구청장에게선 통큰 양보를 기대했고, 노조 집행부에게는 대타협을 기대했는데, 막상 보니 어린이 감정다툼을 보는 것 같았다. 실망이다"는 말이 나왔다.

광주시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노조)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서구는 민선 6기 임우진 청장 취임 이후 성과급 재분배, 내부 자유게시판 폐쇄 등을 둘러싸고 구청장과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무시간 공무원이 청사 내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로사 인정 여부'를 놓고 골이 깊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노사는 3년간의 갈등을 풀어보자며 이날 대화 자리를 만들었다.

양측은 ▲업무시간에 숨진 공무원 과로사 인정과 구청장 사과(노조 측 안건) ▲명예훼손 및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노조 사과(구청 측 안건) ▲성과관리(BSC) 시스템과 성과주의 폐기 등 7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주변의 기대와 달리 노사는 첫 안건부터 설전을 벌였다.

임 청장은 직원 과로사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노조 측에 "수장으로 유족과 노조에 사과했다. 그러나 단순 사과와 달리, 과로사에 따른 사과는 다르다. 공상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 결과를 본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 청장이 "주민을 위해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다는 이유로, '광주 적폐 1호'로 구청장을 규정하고 선전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조 측은 "숨진 부하 공무원에 대한 사과는 유보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건 사리에 맞다고 보느냐"고 맞섰다. 양측은 오후 7시30분께 이렇다할 성과 없이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한 공무원은 "3년 내내 노사가 맞서면서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던 터라 토론회에 건 기대가 컸다. 그런데 토론회를 보니, 임우진 구청장이 공개 토론회에 나왔다는 것 말고 무슨 성과란 게 있느냐"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유족에 공식 사과

"일반 집회 살수차 배치 않겠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총수가 백씨 사건과 관련, 경찰 조직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것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쓰러진 지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사죄 입장을 표명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 진압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확정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연합뉴스

암초 걸린 요트 구조하러 갔더니 정원 초과 '들통'

쌍나팔

○…여수 앞바다를 누비던 요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정원 초과 사실이 들통.

○…1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43분께 여수시 신월동 한 호텔 앞 해상에서 옥모(25)씨가 운항하던 5.7t급 요트 A호가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해보니 정원이 8명인 A호 14명이 탑승한 사실이 탄로났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A호 선장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책임을 물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정원초과 행위는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4020	1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315-5 408㎡	전	55,494,750	일괄매각.목록1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건물일부소재,현황대및일부도로
		완도군 노화읍 서넙도30번길 6 141.55㎡ 제시외 창고 등 55.6㎡[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55,494,750	
2016타경4242	1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628 155㎡	대	53,263,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건물일부타지상소재
		해남군 화원면 척북길 32-3 85.25㎡ 제시외 보일러실 3㎡	단독주택	53,263,500	
2016타경5030	1	완도군 노화읍 등산리 855 502㎡	대	103,815,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조경석및수목포함
		완도군 노화읍 이포등산311번길 5-1 99.94㎡ 제시외 주택일부 등 27.9㎡	단독주택	103,815,900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5541	1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978-5 2970㎡	답	28,521,9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978-6 1287㎡	답	28,521,900	
	2	동소 980-9 3000㎡	답	20,1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00,000	
	3	동소 1120-3 63㎡	대	2,462,400	일괄매각.목록5,6가축사육제한구역
		동소 1121-6 241㎡[물건번호3:매각대상아닌제시외축사[우사목록5,6일부타지상소재].창고[987-6지상]소재]	답	2,462,400	
	4	동소 1194-1 1540㎡[가축사육제한구역]	전	16,165,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194-2 1117㎡[가축사육제한구역]	전	16,165,400	
	5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98 1309㎡[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유자나무]포함]	전	17,602,900	현황과수원.가축사육제한구역
				17,602,900	
2016타경4020	2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307 605㎡	전	2,722,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722,500	
2016타경4792	1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136-5 1997㎡[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6,707,7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만허용
		동소 136-7 281㎡[물건번호1: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건물등존재.박여빈지분1/4전부]	대	16,707,700	
2016타경4907	1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325 1164㎡[지적경계불명,대부분하천구역]	답	11,6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1,640,000	
2016타경5030	2	완도군 노화읍 등산리 874 649㎡[연고미상분묘소재]	전	3,634,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634,400	
2016타경5146	1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산59 12893㎡	임야	35,057,900	일괄매각
		동소 산60 12198㎡[물건번호1:분묘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분묘및고총등정확한소재여부지적경계측량등요]	임야	35,057,900	
2016타경50757	1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1897-6 2014.4㎡	답	19,539,6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9,539,680	
2016타경51156	1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873 1230㎡	전	9,71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9,717,000	
[기타]					
2016타경4389	1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135-5 752㎡[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참조.제2013-19호.제시외수조,제시외기계기구포함] 제시외수조 576.24㎡,기계기구목록참조	양어장	111,186,360	양회문으로부터2017.1.12.자금15,315,450원유치권신고있으나그성립여부는불명
				111,186,360	
2016타경51125	1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722-1 628㎡ 제시외수조 130.5㎡	잡종지	97,502,800	일괄매각.제시외구축물[수조]포함.타인소유제시외수목및조경석제외,목록2실측면적14 4㎡,목록4실측면적105.1㎡기준으로평가
		동소 722-1 수산물가공시설176.00㎡	기타	97,502,800	
		동소 726-3 782㎡[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건물소재]	잡종지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1607-25 81.20㎡	농가주택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722-1 195.00㎡	해태건조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7. 3.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7. 10.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